

문 화

문화예술인들 거문도에 떴다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에 떴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80여 명이 천혜의 비경을 갖춘 해상국립공원 거문도를 찾아 내 나라 내 고장 사랑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관한 2010년 안보스케치는 원로 작가에서부터 젊은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컸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 나라정신을 일깨우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보스케치 행사에는 정순이(광주미술협회장)씨를 비롯해 이우진, 한경숙, 황기록, 김기수, 양동희, 최재창, 김병모, 장천일, 진원장, 최재봉, 이정석, 홍정남, 박문수, 백현호, 김광호, 노정숙, 김일호, 위진수, 한상호씨 등 광주지역 작가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첫 날 거문도 등대 스케치를 시작으로 물레 날 해상 일출, 백도 비경, 동도 서도 섬마을 풍경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영국군 묘지까지 2박3일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촬영과 스케치에 전념했다.

가는 곳마다 멋진 즉석 스케치로 주목을 끈 윤남용(48·한국화가)씨는 "이번 자리를 통해 선·후배는 물론

광주예총, 지역 작가 80여명 안보스케치 백도 비경·일출 등 영감 얻고 앵글에 담아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문화예술인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런 행사가 계속돼 영감을 얻고 경쟁하는 유익한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홍근(65·사진작가)씨를 비롯해 광주사진협회회원 10명은 탐을 나며 아침 일찍부터 거문도 일출과

백도의 비경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등 열린 촬영과 스케치활동을 펼쳐 눈에 띄었다.

서양화가 겸 사진작가인 강경숙(52)씨는 "이번 안보스케치는 문화예술인의 예술정신을 알리고 6·25 전쟁 전상자나 조국의 고마움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멋진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예총은 이번 안보스케치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을 제철반야 6월 중순 미술·사진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향토부대에서 열린 전시회는 군장병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안보의식 고취와 보존의식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작품은 전시회 이후 지역 군부대에 기증, 군장병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에 비치될 예정이다.

/거문도=김대성기자 bigkim@



지난 28일 광주예총 주최로 거문도 일대에서 열린 2010 안보스케치에서 작가들이 사진촬영과 스케치를 하고 있다. <사진작가 강경숙씨 제공>



전남대 치과병원에서는 매주 월·수·금요일 1층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열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음악 듣고 그림 보며 아픈 이 나으세요

전남대 치과병원, 매주 세 차례 피아노 연주회

문화 향기 가득... 환자·보호자들 예술 치료

삭막한 병원 로비에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 간호사·의사 등 의료진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며 위로를 받는다. 격식을 갖춘 무대는 아니지만 피아노 앞 의자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며, 또 로비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며 피아노 선율이 빠져든다.

지난 2008년 11월 광주시 북구 응봉동 전남대 옆에 새 건물을 마련한 전남대 치과병원(원장 박상원)엔 요즘 문화 향기가 가득하다.

전남대 치과 병원은 지난 2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오후 5시~5시30분) 세 차례 병원 1층 로비에서 피아

노 연주회를 열고 있다.

피아노 연주를 맡고 있는 이는 피아니스트 문선은(24·KBS어린이합창단 피아노 반주자)씨. 문씨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클래식을 비롯해, 이루마 등 뉴에이지 작곡가의 음악, 재즈, 대중가요, 드라마와 영화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 주고 있다.

환자들과 직원들의 반응은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목록을 가져와 문씨에게 다음번엔 곡 연주해 달라고 청하는 직원들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와 연주를 들은 후 문씨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행복해 하는 환자들도 있다.

로비에서는 다양한 그림도 감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여류작가 초대전이 한창으로 서양화, 동양화, 판화 등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걸려 있다. 오는 4월 13일부터는 서양화가 이규환씨의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병원측은 앞으로 한달에 한 차례 정도는 피아노 연주회 대신, 바이올린·첼로 등이 어우러지는 간단한 앙상블 공연도 열 계획이다.

병원 1층에는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중이다.

문선은씨는 "처음에는 그냥 7~8곡을 끝라 연습한 후 가서 연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책임감도 느낀다"며 "피아노 연주가 음악치료라 비슷하다고 느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곡 선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میم과 번짐의 美

서예가 전명욱 개인전
내달 2일부터 서울서

'스میم'과 '번짐'은 서예의 멋을 표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지역 중견 서예가 답한 전명욱씨가 오는 4월 2일~17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서예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묵향 그윽한 글씨체와 문인화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글씨체에 회화를 곁들이는 이색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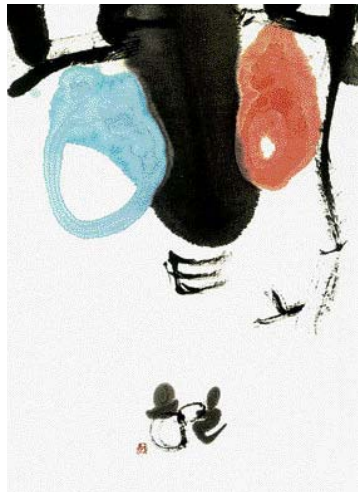
'취구명에도 별들날이'는 청년실업과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글씨로 풀

어낸 작품이며, 먹의 번짐은 효과를 극대화해 화선이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를 담아냈다.

또 '평화통일'은 파랑과 빨강 등의 색을 곁들여 생동감 있는 서예의 진수를 뽐낸 작품이며, 넉넉한 여백의미를 만끽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문서예와 다양한 한글서예를 비롯해 마태복음과 고 김수환 추기경 말 등을 담은 교훈적인 서예 작품들도 눈에 띈다.

목포교육대학교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서예대전 운영위원장,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2차례의 개인전과 '아름다운 우리 한글' '독일 한



'평화통일'

국 묵향 초대전' 서예정신 2009 서울' 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서예협회 고문, 교과부 교육과정심의위원, 예술의전당 강사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0-1161.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시가 흐르는 광주지하철 내일 상무역서 시낭송회

광주시낭송사회(회장 이미영)가 4월 1일 오후 6시30분 광주지하철 상무역 상설무대에서 '제10회 빛고를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를 갖는다.

문학춘추작가회와 함께하는 이번 시 낭송회는 점차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시를 사랑하고, 낭송하며 삶의 여유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양봉모씨 사회로 진행되며 김진선 플루트연주자와 함께 봄의 향기를 전한다.

김혁순, 손덕순, 장진규, 이숙자, 정영숙, 이슬아, 방영남, 박행자, 이기환, 이미영씨 등이 나서 아름다운 시를 낭송한다. 문의 010-3666-30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영남 춤꾼들의 몸짓

광주·대구 무용단 감동무대
내달 2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가 주최하는 '호·영남춤페스티벌'이 4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무용단,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의 '그들만의 Gate'(안무 김미선)는 버거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의 욕망을 '비상구'를 통해 표출한 작품. 현대 무용 특유의 자유로운 몸짓을 선보이며 흥기준 현장순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하나무용단의 '꽃비는 아프다'는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지난 해 초연했던 '꽃비' 중 하이라이트를

품으로 이정진씨 등 6명이 출연한다.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의 '그들만의 Gate'(안무 김미선)는 버거운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현대인의 욕망을 '비상구'를 통해 표출한 작품. 현대 무용 특유의 자유로운 몸짓을 선보이며 흥기준 현장순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숙하나무용단의 '꽃비는 아프다'는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지난 해 초연했던 '꽃비' 중 하이라이트를

모은 작품이다.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며 빼어난 춤사위를 보여준 배강원·이세라씨 등 무용수들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밖에 광주시립무용단은 김유미 단장이 재인무한 '심포니 D'를 무대에 올린다. 하이든 교향곡 101번 '시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IPALG 트라이슈어 단열복합시트 망수시스템
1. 열이 잘 안나가는 뛰어난 단열기능을 자랑합니다. (단열도)
2. 방음기능이 탁월하고 배려까지 고려된 설계입니다.
3. 미용적인 요소로 고급화 시공효과를 자랑합니다.
4. 시공비용이 저렴한 것에도 불구하고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5. 방한, 방습, 방염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방열, 방음, 방습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단열, 방열, 방음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속된(혹은 타고난 시주)은 바꿀 수 없으므로
'이름'은 운명을 직접 책임지며
운명(혹은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개척하십시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3 227-2356, 010-7671-5623